

21주 영적 전투

크리스천은 겐손의 골짜기에서 마귀 아볼루온과 전쟁한다. 전투하는 가운데 위기를 맞이했으나 모든 기도로 극복했다. 결국 전투 후에 그는 더욱 겸손해졌으며,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겐손의 골짜기(Valley of Humiliation)에서 크리스천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다. 얼마 가지 않아서 더러운 괴물 하나가 크리스천을 만나려고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괴물의 이름은 아볼루온(Apollyon)이었다. 크리스천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는 뒤돌아서 갈 것인지, 그대로 서 있어야 하는지 생각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등 뒤에 보호 덮개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만약 뒤돌아서 도망친다면 아볼루온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쉽게 마귀의 화살을 맞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용감하게 맞서기로 결심했다.¹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건져야 하며, 저항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아볼루온을 만났다. 그 괴물은 보기에도 섬뜩했다. 괴물은 생선과 같은 비늘로 덮여 있었으며(이것은 괴물의 자랑거리였다), 용처럼 날개가 있었고, 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다. 괴물의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나왔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² 괴물이 경멸하는 태도로 크리스천에게 다가가서 질문하기 시작했다.

아볼루온-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나?

크리스천- 나는 모든 죄악의 장소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 성으로 가는 중이다.

아볼루온- 내가 보니 너는 내 부하 중 하나이구나. 그 고장은 모두 내 것이며, 나는 그곳의 왕이며 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왕을 배반하고 도망치느냐? 나는 네가 더욱 나를 섬기기를 소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방에 쳐서 너를 거꾸러뜨리겠다.

크리스천- 내가 통치하는 곳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다.³ 그러나 너를 섬기는 것이 힘들었고, 네가 주는 삯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다.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이다(롬 6:23).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자, 다른 신중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 자신을 개선하려는 방법을 찾았다.

아볼루온- 자신의 부하를 쉽게 잃어버리는 왕은 없다. 나는 결코 너를 놓치지 않겠다. 네가 일과 삯에 대해서 불평하니, 불평하지 말고 되돌아가거라. 우리 고장의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너를 후대해 주겠다고 여기서 약속하마.⁴

크리스천- 그러나 나는 이미 네가 아닌 다른 분, 즉 왕 중의 왕이신 분에게 나 자신을 드렸다. 그런데 어떻게 너에게 다시 돌아가겠느냐?⁵

아볼루온- 너는 '나쁜 곳에서 더 나쁜 곳으로 옮겨 갔다'는 속담처럼 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잠시 하나님께 봉사하다가 미끄러져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흔한 일이다.⁶ 너도 그렇게 될 테고, 그때 모든 것이 잘 되겠지.

크리스천- 나는 이미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충성하기로 서약했다. 그러니 내가 배반한다면, 반역자로 간주되어 처형 받지 않겠느냐?⁷

아볼루온- 너는 나를 배반했다. 그러나 지금 네가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해 주겠다.

크리스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어렸을 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깃발 아래에 서 있다.⁸ 분명 그분은 내가 너에게 맹종해서 지었던 모

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이 멸망의 왕, 아볼루온아! 너에게 진리를 말하마! 나는 그분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삶, 그분의 종들,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나라를 너보다 훨씬 좋아한다. 그러니 나를 설득하는 것을 멈추고 떠나라.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앞으로도 그분을 따를 것이다.9

아볼루온- 흥분을 가라앉히고, 네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다시 생각해 보아라. 너도 알다시피 대부분 그의 종들은 마지막에 병에 걸렸는데, 나를 배반하고 내 길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자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느냐! 그 밖에도 너는 그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보다 낫다고 여겼는데, 그는 그에게서 내 손안으로 들어온 그의 신하들을 구원하려고 나서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모든 세상이 아는 바와 같이 권력이나 사기를 동원해서 나를 충실히 섬겼던 자들을 그에게서 수도 없이 구원해 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크리스천- 그분께서 당장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참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지 그 여부를 아시려는 것이다.10 너는 그들이 마지막에 병에 걸렸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현세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고, 그들의 왕이 자신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들이 받을 영광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1

아볼루온- 너는 이미 그를 섬기는 것에 불충실했거늘, 어떻게 그에게서 삶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12

크리스천- 마귀 아볼루온아! 내가 어떤 점에서 그분에게 불충실했단 말이냐?

아볼루온- 우선 네가 길을 떠나 절망의 수렁에서 거의 질식하게 되었을 때 결심이 약해졌고, 너의 왕이 너의 짐을 벗겨 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너는 잘못된 방법을 시도했으며, 너는 죄된 잠에 빠져서 귀중한 증거를 잃어버렸으며, 사자들을 보고 거의 되돌아갈 뻔했으며, 네가 여행하는 중에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너의 모든 언행 안에는 헛된 영광을 갈망하는 것이 있었다.13

크리스천- 네가 한 말 모두가 사실이다. 그렇지만 네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내가 섬기고 공경하는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고장에서 살 때 획득하고 소유했던 약점 때문에 나는 신음하고 슬퍼했는데, 내 왕께서 용서해 주셨다.14

그러자 아볼루온은 벌떡 화를 내면서 말했다.

아볼루온- 나는 네가 섬기는 왕과 원수다. 나는 그의 인격, 그의 법, 그의 백성을 미워하고 있다. 나는 너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나왔다.15

크리스천- 아볼루온, 행동 조심해! 나는 거룩한 길인 왕의 대로에 있어.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자 아볼루온은 길 전체를 막고 다리를 벌린 채 서 있었다.

아볼루온- 이런 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내 지옥의 소굴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더는 못 나아간다. 여기서 너의 영혼을 내동댕이칠 것이다.

이 말과 함께 마귀는 크리스천의 가슴을 향해 불붙은 창을 던졌다.16 그러나 크리스천은 손에 든 방패를 갖고 창의 위협을 막아 내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칼을 뽑아 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분발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볼루온은 크리스천을 향해 여러 개의 창을 우박을 퍼붓듯이 한꺼번에 던졌다. 크리스천은 창을 피하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머리와 손과 발에 부상을 입었다. 크리스천이 조금 뒤로 물러서자 아볼루온이 전속력으로 달려들었다. 크리스천은 다시 용기를 내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사나이답게 저항했다.

이 치열한 전투는 반나절 동안 지속되었다. 크리스천은 거의 기진한 상태에 이르렀다. 부상을 당해 점점 더 약해졌기 때문이다.17

그때 아볼루온이 자신에게 기회가 온 것을 알아차리고는, 크리스천에게 바짝 다가가 끌어당겨 맞붙어 싸우면서 크리스천을 땅에다 쓰러뜨렸다. 크리스천의 손에서 검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자 아볼루온은 “내가 너를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천을 죽을 정도로 내리 눌렀다. 크리스천은 실망하기 시작했다.1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사람이 마지막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아볼루온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빠르게 손을 뻗어 칼을 잡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앞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미 7:8)라고 외치면서 마귀를 찔렀다.19 마귀는 치명상을 입은 듯 뒤로 물러섰다. 이것을 본 크리스천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고 외치면서 다시 찔렀다.20 그러자 아볼루온은 용의 날개를 펴고 멀리 달아났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당분간 마귀를 볼 수 없었다(약 4:7).

어느 누구도 나처럼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아니고는 전투 내내 아볼루온이 울부짖는 소리와 으르렁거리는 소리, 용처럼 말하는 것, 크리스천의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한숨과 신음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양날이 선 검으로 아볼루온에게 부상을 입힌 것을 알기 전까지, 그는 한 번도 유쾌한 표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웃었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것은 내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가장 무서운 광경이었다.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천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볼루온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21 그리고 다음과 같이 찬송했다.

악마의 두목인 거대한 바알세불이 나를 파멸시키고자
갑옷을 입고 분노를 품은 아볼루온을 보내서 나를 맹렬하게 공격했네.
그것은 지옥과도 같았네.
그러나 축복 받은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고,
검의 위력으로 아볼루온을 재빨리 쫓아 버렸도다.
따라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항상 감사하고 축복하게 하소서.

그때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잎을 들고 크리스천에게 왔다. 크리스천이 그것을 받아서 상처 위에 붙이자 즉시 상처가 나았다.22

크리스천은 그곳에 앉아서 아침에 처녀들이 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기운을 다시 차린

크리스천은 검을 빼서 손에 든 채 여행을 계속했다. 다른 원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짜기를 거의 통과할 때까지 아볼루온은 물론 다른 적들을 만나지 않았다.

<Q&A>

1. 마귀에 대한 유일한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벧전 5:8-9)

2. 마귀의 모습에서 우리는 마귀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삼상 17:10-11)

3. 마귀의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골 1:13)

4. 마귀의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마 4:8-9)

5.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롬 6:1-4)

6.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요6:66)

7.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을 받아 미끄러지거나 불신앙에 빠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히 10:39)

8.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행 2:30)
9. 크리스천은 자신이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롬 6:13, 22)
10. 때로는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주께 부르짖어도 곧바로 구원하시지 않는 때를 만납니다. 이때 성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시 66:10)
11. 성도들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눅 16:20, 22)
12. 마귀의 참소는 어떤 것입니까? (요 8:44)
13. 마귀는 성도의 과거 죄와 약점을 들추어내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때 성도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 103:12)
14.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응수해야 합니까? (롬 8:1; 엡 3:12)
15. 크리스천이 계속 마귀에게 대적함으로써 결국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합니까? (계 2:2)

16. 마귀의 공격들은 어떤 것입니까? (신 1:28)

17.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무기를 잘 사용해야 합니까? (시 119:81)

18. 성령의 겹을 놓치고, 마귀가 크리스천을 내리 누르자 크리스천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겹을 놓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 18:25)

19. 전신 갑주와 함께 중요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엡 6:18)

20. 영적 전투에서 구원의 확신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욥 19:25; 롬 8:37)

21. 겹손의 골짜기에서 마귀와의 싸움으로 크리스천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하 33:12)

22. 전투가 끝난 후 크리스천은 어떻게 위로받았습니까? (욥 42:12-13)